코로나 타격 문화계… 대응 예산 매우 부족

2021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계획·파악 없이 공간 지원·확장에만 집중"
오영희 "집행 잔액 반영하지 않은 예산 요구" 비판

박호형 의원.

오영희 의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제주 문화예술 분야가 큰 타격을 입고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인에 대한 지원보다 영리공간 임차료 등 공간지원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26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본연의 역할 수행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내년도 코로나 대응 예산이라고 요청한 예술복지지원센터는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라며 "기존 추진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까지 코로나 예산으로 분류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2억원을 편성한 민간문화예술공간지원사업은 독립서점 등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공간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또 1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프로젝트사업 역시 지원 기준과 유휴공간 운영계획조차 전무하지만 먼저 예산에 반영하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도 공간지원은 공연예술공간에 국한해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동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수효타당성도 없이 공간 확장 예산에 집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산하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현재 운영출연금에 대한 2020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집행예정 잔액이 9억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4억원 상당이 되고 있다"며 "이에 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는 인력, 운영계획, 집행실적 분석 없이 증액 예산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이나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3년째 정원 변동이 없음에도 운영비 요청은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의 10배 이상 예산이 요청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분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된 이후 도 산하 출연·출자기관 13곳에 지출되는 출연금은 2018년 대비 현재 2021년 예산까지 271억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 효과 분석, 운영출연금의 방만한 집행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교육청 2022년이면 빚쟁이 전락"

교육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
"지방채 발행 불가피한 상황"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조만간 빚쟁이 신세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사진)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362억원이 감소한 본예산을 만회하기 위해 시설개선기금을 641억원을 쓴다고 한다"며 "문제는 현재 1300억원 규모의 기금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2022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실질적인 적립은 2023년에 이뤄진다"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2022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2년 전에 지방채를 모두 갚았다"면서도 "지방채 발행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안을 준비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년에도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정부에서는 벌써부터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온다"면서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년 상황이 올해와 비슷하다면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 실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감귤산업 진흥 의지 있나"

농수축경제위원회

4년간 예산 지속 감소 지적
가공 수매가격 개선 주문도

제주도정의 감귤산업 진흥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내년도 감귤진흥과 예산(안)이 감소하면서 감귤가격 하락 등 제주 감귤산업이 직면한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사진)은 26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올해대비 감액 편성된 감귤진흥과 예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내년도 농축산식품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올해대비 1.5% 증액된 1544억6200만원으로 편성됐지만 감귤진흥과는 20억원(증감율 -11.33%) 감액 편성됐다.

특히 송 의원은 감귤진흥과 예산이 최근 4년간 지속 감소한 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감귤진흥과 예산은 2017년 237억여원, 2018년 188억여원, 2019년 178억여원, 올해 167억여원이다. 내년도에는 158억여원이 계상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5년째 제자리인 가공용 수매가격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오은지기자ejoh@ihalla.com

행정시 '청소차량 정비리스' 실효성 도마

환경도시위원회

수리 지연·보험사고 문제 지적

양 행정시가 올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 정비리스'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제주도의회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6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안전교통국·청정환경국·도시건설국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소차량 정비리스 사업비로 제주시 3억원, 서귀포시 2억7500만원이 각각 편성돼 있다.

청소차량 정비리스는 매월 리스비용만 지불하면 리스회사에서 대여와 정비서비스까지 받으면서 청소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사진)은 "청소차량 정비리스는 2017년도에서 시작해 2018년에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언급한 뒤 차량수리 지연과 보험사고 발생 시 문제점 등 올해 운영을 통해 노출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행정은 공공성, 안정성, 지역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정비리스가) 지속 늘어날 것이냐"고 물으며 향후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관련해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14대를 5개월 시범운영했다"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운영한 후 리스를 확대할 건지, 리스 없이 다시 차량을 구매할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대륜동·대천동 하수관로 정비
우수관로·맨홀펌프장 등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서귀포시 대륜동, 대천동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 신시가지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대륜동과 대천동은 공공기관 및 주거밀집 지역으로 우·오수시설, 배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인 하수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 상하수도본부는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용흥, 신시가지, 법환, 서호, 대륜, 호근 등 7개 처리 분구에 총 사업비 273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14.9㎞, 우수관로 0.4㎞, 맨홀펌프장 9개소, 배수설비 1835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6월 공사 도급업체를 선정해 현장사무실 축조 및 야적장 조성, 관급자재 구입 등을 마무리했으며, 지난달부터 본격 사업에 착공해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정비 1단계 사업은 예래동, 중문동, 대천동 일원에 총 사업비 346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정비 35.3㎞, 맨홀펌프장 30개소, 배수설비 3258가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이태윤기자

농업인 대면·비대면 교육 만족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대면·비대면 병행 감귤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서귀포농기센터는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강사의 전문성 93.2%, 교육 만족도 83.6%, 감귤 전문교육 지속성 96.8% 등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농기센터는 농가 교육 수요에 맞춰 내년 감귤 전문교육, 스마트팜, 친환경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코로나19에 대처해 대면교육 및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2021년도 한라일보 갤러리ED
대관계획 공고

한라일보 갤러리ED에서는 미술 분야의 우수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도 대관 계획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대관진행 절차
사전 문의 → 대관 신청서 접수 → 대관 심의 적정 여부 및 일정 조정 → 대관 여부 통보 → 대관 계약 체결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층

대관문의
064)750-2543

Gallery ED

그랜드 보청기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 행사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 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